

이재명 “이미 나라에 망조 들어…역주행 여기서 멈춰 세워야”

이재명, 경기 포천·의정부 돌며 정권심판론 강조 “파 한 단에 3900원…물가 관리 정부 일 아니냐” “접경지 경제 평화에 밀접…평화 세력에 힘 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기 포천과 의정부를 찾아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포천 시내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느냐”며 “이제는 스톱시켜야 한다. 4월10일에 이 역주행을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는 대파 한 단을 손에 들며 “제가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를 가서 대파가 진짜 얼마 하는지 사봤다”며 “대통령이 가면 875원이라니까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쯤 할 줄 있는데 390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 한 단이 875원이나, 8750원이나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파 한 단이 875원하면 농민은 살겠냐. 농민은 뭘 먹고 사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면 합

적인 가격’이라고 말 한 것을 거론하며 “어떻게 875원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나였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를 관리하는 것.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것,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니냐”며 “그러려고 권력을 맡긴 것 아니냐. 그런데 쓰라고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런데 그 세금과 권력을 어디다 쓰고 있다. 고속도로 위치를 바꿔서 땅 투기하는데 쓰지 않느냐. 채 상병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국민 세금을 들여 대사로 보내지 않았느냐”며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살림을 해 달라고 말했더니. 사적 이익을 채우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접경지인 포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

했다. 그는 “접경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남북 간 교류가 되고, 서로 전쟁을 다 잊어버린 시기에 땅값도 오르고, 투자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것이냐”며 “이럴 때일수록 평화 세력에게 힘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공정과 상식, 지금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가느냐”며 “정의, 상식, 원칙이 아예 써가 말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가 진행 중이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며 “입찰막 심지어 ‘칼들막’까지 정권의 폭력 때문에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질식하고 파괴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영부인에게 ‘여사’ 자 안 붙었다고 멀쩡한 방송이 정계를 받는다”며 “영부인이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명품백 수수는 얘기하기도 싫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시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권



력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4월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세세’ 발언을 ‘굴종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외교는 우리 국

민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국익 중심이 아니라 타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안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며 “불필요하게 적대적이고 경제적 위협,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 오고 긴장감을 높였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조국혁신당, 선대위 ‘파란불꽃’ 공식 출범…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은우근 전 광주

조국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향해 질주”

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가 말한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황현선 사무총장이 맡으며 종합상황실장에는 유대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비서실장에는 조우영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책본부장은 비례 12번인 서양진 정책위의장이 임명됐으며 국민소통미디어본부장은 비례 3번인 이해민 전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가 담당한다.

이 밖에 윤재관 전략본부장, 서남권 조직본부장, 오필진 홍보본부장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4번인 신장식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대변인단은 김보협·강미정 대변인과 비례대표 21번인 배수진 대변인으로 구성됐으며 공보단장은 조혜진 부대변인이다.

선대위 명칭은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로 결정했다. 불꽃이 가장 높은 온도일 때 파란색

을 띤다는 점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조국 상임선대위원장은 “파란불꽃은 조국혁신당의 상징”이라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 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으로 조국혁신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조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대위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란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고 절차에 따라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전남 최고령 82세·최연소 28세

후보등록으로 막이 오른 제22대 총선에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50대가 16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 9명(25%), 40대 7명(19.4%), 30대 2명, 70대와 80대가 각각 1명이 등록했다.

광주 최고령 후보는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9번 기독교당 김천식 후보로 1942년 1월 3일에 출생해 올해 82세이다.

또 서구를 선거구 중 후보자가 가장 많아 김 후보가 광주전남 최고령 기수로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연소는 1990년 10월 9일에 태어나 올해 33세인 기호 7번 개혁신당의 장도국 후

보로 동구남구구에 도전장을 던졌다.

직업을 배우로 내세운 장 후보는 같은 30대인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은식(39) 후보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59), 기호 8번 진보당 김미화(47) 후보와 국회의원 한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광주 최고령 김 후보와 최연소 장 후보의 나이차는 49년이다.

전남은 후보자 36명 중 50대가 18명(50%)이며 60대 14명(38.8%), 20대·30대·70대·80대 각 1명씩 출마했다.

최고령은 81세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후보이다. 1942년 6월 5일로 생일을 등록했다.

최연소는 1995년 6월 21일, 28세로 등록된 기호 7번 진보당 여찬 후보로 여주시수에 도전장을 던졌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